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11월 첫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2.6% 하락. 원/달러 환율은 1,118.1원으로 하락. 곡물가는 옥수수(+1.0% WoW), 소맥(+0.7% WoW), 대두(+5.1% WoW), 원당(-2.9% WoW) 기록. 옥수수는 미국 에탄올 재고량 확대로 에탄올 제조용 옥수수 수요 부진이 우려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주 수출 판매 실적 부진 더해지며 가격 상승 제한. 소맥은 러시아의 소맥 수출량 감소 및 EU 소맥 수출 부진 소식으로 미국산 소맥 수출 경쟁력 제고 기대감이 전주 대비 가격 소폭 상승. 대두는 미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무역 문제에 대한 긍정적 대화 소식에 미국산 대두 수요 재개 기대감이 가격 강세 이끌. 원당은 브라질 대선 종료와 함께 브라질 헤알화 약세가 브라질 농가들의 원당 수출 수요 확대 의지를 높이며 가격 전주 대비 약세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점차 생산 재개 및 새로운 캐파 증설 출현. 8월 수출 물량 사상 최대치 달성. 타이트한 원재료 공급이 라이신 원가 부담으로 작용해 단기간 생산량 감소 예상되며 가격 상승 전망. Fufeng, Dongxiao 출하 예정. 단백질 비중 축소 규정 11/1일부터 시행.
메티오닌은 중국 국내 제조업체들의 생산 중단으로 타이트한 공급 상황. Evonik 독일 공장은 라인 강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물류 및 운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 10~11월 생산량 감소 전망. 메티오닌의 수출 세금 환급률 13% → 16%로 인상 소식은 중국 내 제조업체 미국향 수출 물량 늘릴 것으로 예상. Ziguang 생산 재개, Xinhecheng 공장 중단 상태. 쓰레오닌은 재고 압력 지속으로 단기간 약세 지속 전망. 최근 중국 내 대두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대두박 현물 가격 상승 중. 4분기 대두박 수요 축소될 것으로 전망. 트립토판은 최근 생산 재개로 인한 공급 증가 예상되나 단기간 가격 안정 전망. 환경 보호 규제로 매화 Tongliao 공장, Ningxia Yipin 공장 생산 중단 중

국내 이벤트는 1. CJ제일제당, 진천 공장 생산 시작. 2020년까지 총 5400억원 투자해 햇반 비롯한 냉동편의식품, 육가공, 가정간편식(HMR) 생산할 방침. 2. 롯데칠성, 소주 '순하리' 생산공장 4곳 모두 식약처로부터 영양표시 위반으로 5일~15일 행정처분. 3. 남양유업, 임페리얼 XO 분유에 대한 이물질 논란에 혼입 불가한 의견 피력.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을 통해 모든 검사를 총동원할 계획. 4. 한라산소주, 11/2일 신공장 준공으로 일평균 생산량 15만병에서 25만병으로 약 66% 증가 가능. 19년 매출 올해 대비 2배 이상 달성 목표. 5. 신세계, 오비맥주 인수 위해 TF팀 구성했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 주장

2. 급주 전망

음식료: 3Q18 Preview 전년도 높은 베이스 효과로 YoY 실적 보다는 QoQ 개선 및 예상치 상회 종목에 주목: CJ제일제당, 오리온, 대성, 매일유업 실적 호조 예상. KT&G는 실적은 부진하나 19년 수출 회복 기대감 유효

3Q18 Preview CJ제일제당 3Q18 실적 전망치는 매출액 48,933억원 +10.9% YoY, 영업이익 2,558억원 -5.0%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 4.1% 상회, 영업이익 4.3% 하회 예상. 영업이익 하회는 대부분 대한통운 실적 변동치에 기인하며 대한통운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2,033억원으로 시장 기대치에 충족할 전망. 추석 효과와 주력제품/HMR 매출 호조 영향으로 본업 영업이익은 예상치 상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오리온 3Q18 실적은 매출액 4,970억원 -14.3% YoY, 영업이익 790억원 -12.1% YoY 으로 컨센서스 대비 각각 2.9% 하회, 4.3% 상회 예상. 전년 대비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회계변경에 따른 매출조정과 3Q17 사드 직후 중국법인의 대규모 1+1 할인 매출의 기저(基底) 때문. 2분기 실적 부진 이후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월 단위로 개선되고 있는 중국 매출액 회복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 매일유업 3Q18 실적은 매출액 3,316억원 -2.0% YoY, 영업이익 220억원 +2.6% YoY 으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 예상. 매출액은 회계변경 영향으로 2% 감소, 전년 동일 기준 1~2% 성장 흐름 유지. 중국 수출 분유, 백색시유,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카테고리 외형 확대 지속. 전년 대비 마케팅비 절감 효과로 영업이익의 성장 흐름은 이어질 전망. 3Q18 Review KT&G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5.3% 하회했지만 당사 추정치 3,601억원 및 낮아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한 실적. 특히 수출과 관련하여 현지 판매가 순항 중이며 환율 영향이 대부분이라는 설명 4분기말 1분기초 안전재고 소진과 재주문이 예상된다는 점 긍정적. 과거 13~14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19년 수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확대 예상. 배당에 대한 가이드스가 다소 보수적이지만 4,000원이라는 절대 수준이 변동 없음을 확인. 수출회복 시그널 발생이 추가 상승 트리거가 될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매일유업 (267980)

3Q18 실적은 매출액은 전년동일 기준 1~2% 성장세, 백색시유, 수출분유, 커피음료, 상하목장 등 매출 성장 주도. 매출 성장과 백색시유의 수익성 개선, 전년비 마케팅비 절감 노력으로 영업이익도 매출 흐름과 유사한 성장 예상. 시장 컨센 220억원대 부합 예상. 가격 인상은 백색시유 1위 서울우유, 2위 남양유업이 발표를 완료, 검토중인 단계로 판단. 백색시유 매출비중 30% 차지하는 B2B 채널의 매출 성장흐름 지속. 백색시유 전체적으로 낮은 한 자리 수 매출 성장 예상. 수익성 측면에서 1Q18-3Q18 QoQ 적자폭 축소는 지속 중. 발효유는 3Q18는 프로모션 효과로 매출액은 5% 이상 성장세. 커피음료 3Q18 매출액 5~6% 성장, 폭염과 경쟁심화가 맞물리는 환경에서 무리한 판촉 경쟁은 지양했음. 국내 분유 매출액 감소폭 축소 중인 점 긍정적. 수출분유 1Q18 70억원, 2Q18 110억원 달성, 3Q18 120억원 예상되며 전기비 증가세 유지. 18년 400억원 달성 가능성은 높은 상황

오뚜기 (007310)

수산물류(미역, 참치, 다시마, 톳조림 등) 한 자리 수 후반 감소. 면류(라면, 당면, 국수, 냉장면 등)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라면류 한 자리 수 중반 증가. 쌀류(즉석밥, 찌꺼기, 찰밥) 한 자리 수 후반 증가. 유제품(참기름, 식용유, 마가린, 쇼트닝, 고급유)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냉동식품류(만두, 냉동피자, 볶음밥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기타류(선물세트 등) 한 자리 수 초반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11월 5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